

# 중국에서 새로운 담론은 어떻게 출현하는가?

- 허쉐핑(賀雪峰)의 '토지재정' 해석을 중심으로

김도경\*

## <목 차>

1. 문제 제기
2. 새로운 담론의 사회적 조건
3. '학술 공동체 내 지위'와 허쉐핑이 처한 학술 환경
4. 대학 출판사의 현실과 허쉐핑의 '기회구조'
5. 중국 학술 공동체 내의 서로 다른 학술 규범
6. 나가며

## 1. 문제 제기

중국 사회에서 '토지 재정'은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도시 주민들의 소득 수준보다 높게 형성될 때면 토지 공급을 지방 정부가 독점하는 현재의 토지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되고, 날이 심화되는 중국의 빈부 격차도 농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지방정부의 횡포로 설명되곤 한다.<sup>1)</sup>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의 출현은 지방정부가 실제 수요를 고려치 않은 채 무분별하게 토지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이라 설명되고<sup>2)</sup>, 토지

\*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1) 周其仁, 《改革的邏輯》, 北京: 中信出版社, 2013, 95-192쪽.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華生, 《城市化轉型與土地陷阱》, 2013, 北京: 東方出版社, 69-83쪽.

2) Chiew Pin Yew, "Pseudo-Urbanization? Competitive Government Behavior and Urban Sprawl i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1(74), 2012.

담보에 기초한 용자 시스템의 형성도 향후 혹 있을지 모르는 중국 발 금융 위기의 우려 때문에 ‘시한폭탄’처럼 묘사되곤 한다.<sup>3)</sup> 자원 낭비와 불균형, 지속 불가능과 불공평한 분배 등 중국 사회에서 거론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토지 재정’과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학자들이 ‘토지 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허쉐펑(賀雪峰)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sup>4)</sup>, 그는 중국의 현 제도적 상황에서 ‘토지 재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토지 재정’을 통해 형성된 지방정부의 수입은 지방 관료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 인프라 건설에 주로 사용되며, 따라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을 다른 국가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에 이미 도시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구매자가 그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sup>5)</sup> 나아가 지방정부가 ‘토지 재정’을 통해 농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주장한다. ‘토지 재정’에서 지방 정부의 토지 수용은 언제나 농민들에 대한 보상을 수반하며, 그 보상 금액을 시장가격에 맞추는 것이야말로 불합리한 처사라는 것이다. 도시 근교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노동의 수고 없이 막대한 토지 보상금을 챙기는 것은 개발에 따른 토지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이념과 상충한다. 게다가 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농민 인구가 전체 농민 인구의 채 10%가 되지 않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10%도 안 되는 이들의 이익이 마치 전체 농민의 이익인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6)</sup> ‘유령 도시’의 출현이나 금융 위기에 대한 불안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경제 성장을 제고에 혈안이 되어 수요를 고려치 않은 채 부동산 개발에 나서는 지방정부의 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토지

3) 周其仁, 앞의 책, 161-172쪽. 아울러 이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은 楊帥·溫鐵軍, <經濟波動, 財稅體制變遷與土地資源資本化>, 《管理世界》, 第4期, 2010.

4) 이 외에도 자오옌징(趙燕菁)이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趙燕菁, <土地財政: 歷史, 邏輯, 抉擇>, 《城市發展研究》, 21卷, 2014. 참조.

5) 이 부분은 자오옌징의 논의에서 좀 더 부각된다. 趙燕菁, 앞의 책, 2-3쪽.

6) 賀雪峰, 《地權的邏輯II》, 北京: 東方出版社, 2013, 33-35쪽; 81-83쪽.

를 통해 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 언제나 금융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토지 재정'을 부정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급진적인 데 있는 것이지 '토지 재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감시와 관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부정과 폐지의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식이 될 수 없다.<sup>7)</sup>

허쉈핑은 오히려 중국의 '토지 재정'에서 합리성을 발견한다. '토지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도시 개발에 필요한 최초의 신용을 창출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여 도시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 소득 집단이 원천적으로 형성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토지의 가치 상승은 개인의 노동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전기, 수리 시설 등의 공공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그 가치 상승분을 개인이 아닌 공공 재정에 편입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평을 실현하는 길이다. 도시 근교의 일부 농민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시장 가격에 맞춰 거래하는 것은 노동과 상관없다는 점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중국 사회주의 시기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토지 재정'은 그 최초의 기획 의도와 상관없이 현 중국의 제도적 상황에서 나름의 합리성과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다.<sup>8)</sup>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이 양립하는 상황에서 이 글이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허쉈핑의 '토지 재정' 해석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그는 왜 일반적인 시각과 상반되는 의견을 제기하는가? 그는 어떻게 주류의 시각에 반하는 자신의 독특한 생각을 발표할 수 있었는가?

7) 賀雪峰, 《城市化的中國道路》, 北京: 東方出版社, 2014, 150-171쪽.

8) 賀雪峰, 《地權的邏輯Ⅱ》, 北京: 東方出版社, 2013, 106-109쪽; 賀雪峰, <中國土地制度的憲法秩序>, [http://www.snzg.net/article/2013/0917/article\\_34967.html](http://www.snzg.net/article/2013/0917/article_34967.html)

## 2. 새로운 담론의 사회적 조건

새로운 담론의 사회적 조건을 묻는 질문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위치와 그들의 지식, 혹은 이데올로기 사이의 상관성을 논하는 지적 전통 위에서 우선 살펴볼 수 있다. 만하임의 연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sup>9)</sup>, 문제는 거츠가 지적했던 것처럼<sup>10)</sup> 이러한 접근이 환원론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가 서로 다른 지식을 낳는다고 문제를 풀어 버리게 되면, 지식은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서로 다른 어떤 특성으로 간주되어 버리고, 따라서 연구는 지식의 형성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계급'과 같은 정치적 입장에 대한 것으로 바뀌고 만다. 또한 이 때문에 지식과 사회적 위치 사이의 관련성이 그의 논의에서는 모호하게 처리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지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고 출현하는지에 대해 별다른 분석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후의 많은 연구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새로운' 지식사회학이라 칭하였던 데에는 만하임의 이러한 지적 전통에서 그 한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sup>11)</sup>

따라서 새로운 담론의 사회적 조건을 묻는 질문은 문화(지식)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그 실제적인 양상에 대한 분석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담론이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회적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연구들이 새로운 담론의 형성에서 연구자들의 합리적인 의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담론의 출현이 연구자들의 합리적인 의심과 함께

9) 카를 만하임,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파주: 김영사, 2012.

10) Geertz, Clifford, *Local knowledge : further essays in interpretive anthropology*, New York: Basic, 1983, pp.152-153.

11) Ann Swidler & Jorge Ardití, "The New Sociology of Knowledge",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0, 1994.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구자의 합리적인 의심이 언제나 새로운 담론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정상과학의 본질을 수수께끼 풀이라 규정하면서, 연구자들이 수수께끼 풀이 과정에서 많은 예외적 현상들을 접하는 순간, 기존 학설과 이론, 지식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기존의 연구 패러다임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이례적 현상이 많이 발견되었을 때, 정상과학은 위기에 봉착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혁명적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물론 쿤의 관심은 학술 공동체 안에서 과학적 진리가 결정되는 그 메커니즘을 살피는 데 있었지만, 수수께끼 풀이나 혹은 이례적 현상의 발견을 그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형성에서 기본적인 동력이 합리적인 의심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sup>12)</sup>

합리적 의심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비단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여성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연구가 출현하는 과정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1960년대 이후 여성 혹은 흑인 연구자가 학술 공동체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학술 연구가 그들의 경험이나 사회적 배경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에 따라 새로운 학술이 제도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sup>13)</sup> 만약 새로운 사회적 배경의 연구자들이 학술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학술의 등장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학제 간 연구의 차이가 이러한 합리적 의심의 발단이 되곤 하는데, 1990년대부터 미국 사회학 내 일부 연구자들은 인지 과학이 축적한 연구 성과를 자신의 연구 영역 안으로 적극 가져가고자 하였다.

12) 토마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 서울: 동아출판사, 1992.

13) Messer-Davidow, Ellen, *Disciplining Feminism: From Social Activism to Academic Discours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2; Small, Mario L. 1999, "Departmental conditions and the Emergence of New Disciplines", *Theory and Society*, vol.28, 1999.

인지 과학의 연구 성과가 기존 사회학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데, 물론 기존의 학술 권위는 이를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다른 학술 영역의 연구 성과가 기존의 학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의심으로 기능하면서 새로운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는 점이다.<sup>14)</sup>

허쉐핑의 '토지 재정' 해석 역시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허쉐핑의 초기 연구는 대부분 농촌 거버넌스에 대한 것이고, 실제로 그는 중국 내에서 대표적인 농촌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농촌 현지조사로 유명한데, 그가 여러 차례 “중국 사회는 중국 농촌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sup>15)</sup>고 말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자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허쉐핑의 '토지 재정' 해석은 농촌 현지조사를 통해 축적된 자신의 경험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발전하게 된 경우일 수 있다. 도시화 전략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농촌의 현실이 학계의 일반적인 이해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로 인해 '토지 재정'의 합리성을 적극 제기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허쉐핑은 자신이 중국의 토지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류서우잉(柳守英)의 글 때문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sup>16)</sup> 류서우잉의 기본 입장은 토지의 자본화와 상품화를 적극 옹호하는 것이었는데<sup>17)</sup>, 이는 허쉐핑 자신이 경험했던 농촌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해였다. 허쉐핑은 이를 계기로 중국 토지 제도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2010년에 출판된 《토지 권리의 논리》가 바로 그 결과물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만으로 새로운 담론의 형성과 출현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무엇보다 학술 공동체에서 '합리적인 의심'은

14) DiMaggio, Paul J. "Culture and Cogni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3, 1997; Turner, Stephen P. *Brains/Practices/Relativism: Social Theory after Cognitive Scie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15) 賀雪峰, 《地權的邏輯》,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0, 322쪽.

16) 필자 인터뷰(2015/02/02). 아울러 賀雪峰, 앞의 책, 349쪽 참조.

17) 劉守英, <對三中全會土地改革的解讀>, 《國土資源導刊》, 第88期, 2013; 劉守英·周飛舟·邵挺, 《土地制度改革與轉變發展方式》, 北京: 中國發展出版社, 2012.

일상사에 속한다. 너무나 다양한 의심이 너무나 자주 제기되지만(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합리적인 의심'이 언제나 새로운 담론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회운동의 출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운동의 출현이 언제나 사회적 불만이나 불평을 전제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만과 불평이 언제나 사회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적 불만과 사회운동 사이에는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필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가 자주 '동원(mobilization)' 연구로 치환되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존재한다.

어쩌면 문학사나 지성사 등의 역사 서술은 '동원'의 관점으로 새로운 담론의 출현을 분석하는 이러한 태도가 영 불편한 것일 수 있다. 시대정신이나 사조, 영향 관계 등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복고와 순환, 부흥 등이 주된 술어로 제시되는 역사 서술에서는 단절보다는 연속성이 강조되기 마련이다. 그러한 서술에서 새로운 담론은 기존의 담론을 어떤 식으로든 계승한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허쉐핑의 '토지 재정' 해석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그의 담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사회주의 시기 동안 면면히 이어져왔던 지적 전통의 맥락 위에 있는 것이다. 만약 문제를 통시적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허쉐핑의 '토지 재정' 해석이 새롭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서술이 간과하는 것은 왜 하필 지금인가에 대한 설명이다. 10년 전이나 10년 후가 아니라 왜 하필 지금인가? 허쉐핑의 '토지 재정'이 중국 사회에 출현하는 지금의 역사적 맥락은 다른 시기의 그것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 글 역시 허쉐핑의 '토지 재정' 해석이 역사적인 맥락 위에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실제로 그 전통은 허쉐핑의 글에서 얼마든지 쉽게 찾아질 수 있다.<sup>18)</sup>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토지 재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에서 허쉐핑이 그 전통을 소환해 '토지 재정'을 적극 옹호한다는 것은 그와는 또 다른 성격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주류 학계가 그 지적 전통을 잊어버리고 있는 한, 허쉐핑

18) 가령 賀雪峰, <人民公社의三大功能>, [http://www.snzg.net/article/2007/1114/article\\_7916.html](http://www.snzg.net/article/2007/1114/article_7916.html)을 참조.

의 '토지 재정' 해석은 여전히 새로운 담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초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새로운 담론의 탄생으로 이어가게 만드는 특별한 사회적 조건이다. 이 사회적 조건 속에서만 '합리적인 의심'은 새로운 담론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물론 알렉산더<sup>19)</sup>나 라몽<sup>20)</sup>이 지적했던 것처럼, 연구자가 새로운 지식을 내놓게 되는 이유를 단 하나의 '전략적 이득(strategic gain)'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연구자가 어떠한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있든, 그들이 특정 사회적 조건에 처해 있을 때 더 쉽게 새로운 담론을 낳을 수 있다는 가정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어쩌면 새로운 담론의 출현에서는 이 사회적 조건이 최초의 '합리적인 의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기존의 '토지 재정' 이해와 상반되는 해석을 허쉐핑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단순히 그가 '합리적인 의심'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합리적인 의심'은 조직되고 운영되며 유통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처해있던 특별한 사회적 조건 때문이었다고 봐야한다. 이를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허쉐핑이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는 의미로 읽지 않기를 희망한다. 필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학자적 양심과 태도를 존중하며, 그의 연구에 특정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합리적인 의심'이 새로운 해석으로 학계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해 있던 특별한 사회적 조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사회적 조건이 아니었다면, 그의 '합리적인 의심'은 단순한 일상사 속에 묻혀버릴 수 있었다. 이글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허쉐핑이 자신의 '합리적인 의심'을 새로운 담론의 출현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사회적 조건이다.

19) Alexander, Jeffrey C. *Fin de Siecle Social Theory: Relativism, Reduction, and the Problem of Reason*, London, England and New York: Verso, 1995.

20) Lamont, Michele, "Three Big Questions for a Big Book: Collins's *The Sociology of Philosophies*", *Sociological Theory*, Vol.19, 2001.

### 3. '학술 공동체 내 지위'와 허쉐핑이 처한 학술 환경

새로운 담론의 출현을 설명할 때 기존 연구들은 그 지식을 제기한 사람의 학술 공동체 내 지위를 중시한다. 이는 신뢰(credibility)의 문제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인데, 기존의 이해에 반해 새로운 담론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그 새로운 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sup>21)</sup> 근대 이후 이 자격은 학술 공동체라는 공식적인 제도가 담당하고 있다. 학술 공동체가 정한 교육 과정과 훈련을 받아야 하고, 나아가 그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학술 규범을 익혀야 비로소 새로운 담론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박사학위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찾아져야 한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학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합리적인 의심'을 언제나 새로운 담론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막 그 자격을 부여받은 젊은 연구자는 학계가 공인하고 있는 기존 학설을 뒤엎기가 대단히 어렵다. 두 가지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위험 부담이다. 이제 막 자격을 갖춘 연구자들은 많은 경우 학계 내의 권위가 높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취업 자체가 불안한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계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든, 아니면 효용의 차원에서든 부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게다가 학술 공동체 내의 촘촘한 네트워크가 그 위험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학술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지도교수나 혹은 선배 연구자가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진 연구자가 새로운 지식을 제기하려면, 학술 공동체 내에 '사람'과 '지식'을 철저히 구별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중국과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 이는 대단히 어려운

21) Shapin, Steven, *A Social History of Trut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일이라고 봐야 한다. 두 번째 어려움은 자원의 한계이다. 기존의 학설을 반박하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담론을 발표하기 위한 매체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젊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비 등이 부족하기 마련이고, 출판의 기회 역시 대단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신진 연구자가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더라도 이를 학계에 발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활용 가능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신진 연구자의 새로운 지식 생산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학계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라고 봐야 한다. 프리켈과 그로스가 일반이론으로 제시했던 것처럼<sup>22)</sup>, 학술 공동체 내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는 연구자만이 자신의 ‘합리적인 의심’을 새로운 담론의 출현으로 이어갈 수 있다.

그런데 학술 공동체 내 지위를 중시하는 이러한 설명 방법은 허쉐핑의 케이스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허쉐핑이 중국 학술 공동체에서 젊은 연구자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은 학술 권위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다. 허쉐핑은 1968년 생으로 화중과기대학에 재직 중이며, 무엇보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1977년 까오카오(高考)가 부활된 이후 중국의 대학에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박사학위 미소지자들이 대학 교원으로 충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허쉐핑 역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연구역량과 상관없이 이는 대외적인 학술 활동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그의 전공은 사회학이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의 핵심 연구 분야는 토지 제도가 아니라 농촌 거버넌스이다. ‘토지 재정’이 기본적으로 도시 개발과 관련된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경제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토지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도 아닌 그가 ‘토지 재정’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는 것은 거의 도발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허쉐핑의 대적

22) Frickel & Gross, "A General Theory of Scientific/Intellectual Movem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70, 2005.

점에 서서 논쟁을 펼쳤던 저우치런(周其仁)은 허쉐핑의 새로운 담론을 ‘죽은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sup>23)</sup> 중국인민대학과 중국사회과학원을 졸업하고, 해외 우수 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과거 중국 내 최고 농촌 경제 전문가였던 두룬성(杜潤生)의 밑에서 일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베이징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저우치런의 이력은 그런 점에서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물론 허쉐핑 역시 중국 학계 내에서 비교적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는 현재 화중과기대학 향촌거버넌스연구소의 주임으로 재직 중인데, 이는 그가 자신의 연구를 폭넓게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연구센터가 발간한 소식지에 따르면<sup>24)</sup>, 2014년 한 해에만 28개 팀이 농촌 사회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합계 조사 시간이 5,300일에 달하였다. 게다가 그는 《인민일보(人民日報)》와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의 우수 언론 매체에 자신의 칼럼을 실을 수 있을 만큼 그 지명도가 높은 편이고, 그가 작성한 각종 정책 보고서들은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 기관의 승인을 얻을 정도로 정책 영향력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환경이 ‘토지 재정’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반해 그가 단독으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확실한 토대인 것은 아니다. 단적인 예가 출판인데, 그의 첫 번째 연구 결과물이었던 《토지 권리의 논리》(2010)는 최초 H출판사에서 출판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원고 집필이 완료된 이후 출판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였다.<sup>25)</sup> 그것이 원고의 내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가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 출판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3) 周其仁, <給農民更多的土地權利真的會損害農民的利益嗎?>, <http://www.eeo.com.cn/2011/0722/207068.shtml>

24) 華中科技大學中國鄉村治理研究中心, 《中國鄉村治理研究中心簡報》, 第21期, 2015, 2쪽.

25) 필자 인터뷰(2015/02/02). 출판 계획이 취소된 경우는 그 전에도 있었다. 허쉐핑은 농민 단원 운동에 대한 책을 편집해 그 서론까지 작성했지만, 결국은 출판에 실패하고 말았다. 賀雪峰, <農民上訪, 村庄政治與社會科學主體性>, [http://www.snzg.net/article/2013/0208/article\\_32558.html](http://www.snzg.net/article/2013/0208/article_32558.html) 참조.

따라서 허쉐핑 개인이 처해 있던 학술 환경으로 새로운 담론을 내놓을 수 있었던 사회적 조건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분명 허쉐핑이 동원할 수 있었던 자원이 비교적 풍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을 새로운 담론으로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유통(출판)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은 또 다른 사회적 조건이 필요하였음을 암시한다. ‘학계 내 지위’와 함께 다른 사회적 조건이 갖춰짐으로써 허쉐핑의 ‘합리적인 의심’이 새로운 담론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과연 그 사회적 조건이 무엇일까?

#### 4. 대학 출판사의 현실과 허쉐핑의 ‘기회구조’

H출판사가 《토지 권리의 논리》의 출판을 취소하였지만, 허쉐핑은 어렵지 않게 새로운 출판사를 찾을 수 있었다. 중국정법대학 출판사가 그 대안이 되었는데, 이를 허쉐핑의 자원 동원 능력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설명은 조금 다른 차원을 제기하고 있다. 많은 출판사들이 원고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로 인해 중국정법대학 출판사가 꾸준히 자신에게 출판 요청을 해왔었다는 것이다.<sup>26)</sup> 그렇다면 《토지 권리의 논리》의 출판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허쉐핑의 자원 동원 능력과 함께 중국 출판업계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대학 출판사의 필요가 존재했기 때문에, 허쉐핑은 비교적 손쉽게 필요 자원을 끌어올 수 있었다.

실제로 중국의 많은 대학 출판사는 문화체제 개혁이라는 당 중앙의 요구에 따라 출판시장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2007년 교육부와 신문출판총서는 대학출판사의 체제 개혁과 그 시범 운영에 대한 공작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후 많은 대학 출판사들은 학교 부설 사업 단위에서

26) 필자 인터뷰(2015/02/02).

기업으로의 체제 전환을 요구받았다. 인력 채용이나 재정, 경영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출판 시장은 점점 더 자본의 논리가 강화되고 있다. 대학 출판사들의 주요 수입원은 교재 출판인데, 대규모 출판기업들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 대학 교재 시장을 잠식하면서 중소기업의 대학 출판사들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쉐핑의 원고는 최소한 대학 출판사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일 수 있다. 그가 베스트셀러 작가인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판매부수는 어느 정도 보장해줄 수 있는 저자이기 때문인데, 가령 2003년 광서사범대학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던 허쉐핑의 《신향토중국》은 2쇄 인쇄를 거쳐 총 9,000부 가량이 판매되었고, 2006년 출판사가 3쇄 출판을 의뢰했을 때 허쉐핑이 개정의 필요 때문에 인쇄를 사양했을 정도로 시장의 반응이 좋은 편이었다. 중국정법대학 출판사가 출판했던 허쉐핑의 《토지 권리의 논리》는 지금까지 10,000 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업적 맥락은 '토지 재정'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토지 권리의 논리Ⅱ》(2013), 그리고 그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도시화와 중국의 길》(2014)의 출판에서 더 명확해진다. 이 두 책은 모두 동방출판사가 출판하였는데, 동방출판사는 인민출판사의 자매 출판사로서 그 규모나 시장 영향력 면에서 대형 출판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실제로 동방출판사의 상업적 의도는 여러 군데에서 확인된다. 예를 들어, 《토지 권리의 논리Ⅱ》는 최초 제목이 《토지 권리 변혁의 진실과 오류》였지만, 전작의 명성을 이어가고자 했던 출판사의 요구에 따라 《토지 권리의 논리Ⅱ》로 그 제목이 수정되었다.<sup>27)</sup> 중국정법대학 출판사가 펴낸 《토지 권리의 논리》는 그 최초 발행 부수가 3,000부에 불과하였지만, 동방출판사는 두 책 모두 처음부터 8,000부를 찍었고 유명 인터넷 서점에 광고가 내걸리기도 하였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토지 권리의 논리Ⅱ》나 《도시화와 중국의 길》 모두 허쉐핑이 완전히 새로 쓴 원고가 아니라는 점이다. 삼농중국 사이트를 통해 이미 발표되었던 글들이 이

27) 賀雪峰, 《地權的邏輯Ⅱ》, 北京: 東方出版社, 서론 참조.

두 권의 책을 통해 많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장에 상품을 내놓으려는 출판사들의 바람이 섞인 결과였다. 허쉐핑이 이를 확인시켜 주는데, 지금처럼 토지 제도에 대한 출판물이 많아진 이유를 그는 주저 없이 '비즈니스(生意)'라고 규정한다. 장사가 되는 아이템이다 보니 시장이 형성되고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중국 공산당이 그 시작을 열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 '125'규획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시화 전략을 제기한 이후, 중국 공산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시화 전략을 자신들의 핵심 경제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2012년 18대 보고에서는 '신형 4화'라는 새로운 방침 속에 '신형 도시화'를 포함시켰고, 2013년의 18기 3중전회도 '사람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도시화를 중요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2014년에는 <국가 신형 도시화 규획(2014-2020)>을 비롯한 많은 관련 문건이 쏟아지듯 발표되기도 하였다. 도시화 전략은 기본적으로 토지제도의 개혁을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급증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게다가 도시화나 토지제도는 도시 주민들의 삶에 중요한 부동산 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도시 인구의 증가와 주택 가격의 변동, 도시 개발 계획과 농촌 토지의 수용 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중국 사회의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출판시장의 상업적 맥락, 그리고 위에서 살펴보았던 대학 부설 출판사의 체제 개혁 등은 학술 공동체 내에서 허쉐핑이 갖고 있는 지위와 기본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허쉐핑이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외면한다고 해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허쉐핑이 자신의 합리적 의심을 새로운 담론으로 내놓으려 했을 때, 중간 수준(meso-level)에 형성되어 있는 이 구조가 '기회'를 열어주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출판의 통로가 막혔을 때 손쉽게 그 대안을 찾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후속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도 여기서 찾을 수 있었다. 가장 적절한 시점에 이 기회 구조(opportunity structure)가 형성되면서 허쉐핑의 새로운 담론

이 빛을 볼 수 있었다. 그 반대의 경우였다면, 허쉐핑의 새로운 담론은 묻혀버리거나, 혹은 최소한 지연되었을 확률이 높다.

## 5. 중국 학술 공동체 내의 서로 다른 학술 규범

중국 공산당의 도시화 전략이나 출판시장의 상업적 맥락, 그리고 대학 출판사의 체제 개혁 이외에도 허쉐핑이 새로운 담론을 조직하고 유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또 하나의 기회 구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학술 공동체 내에 형성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술 태도, 혹은 학술 규범의 차이가 그것인데, 이 차이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학술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허쉐핑은 자신의 새로운 담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유통시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출판시장의 상업적 맥락이 이 학술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측면이 있다. 《토지권리의 논리》와 《도시화와 중국의 길》이 출판되었을 때 이를 추천했던 이들은 각각 다섯 명씩이었는데, 신간 도서에 대한 추천사가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그들이 모두 ‘중국의 길’을 강조하는 학자라는 사실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가령, 윈테권(溫鐵軍)은 원시자본의 축적이라는 관점으로 신중국 성립 이후의 역사를 해석한 바 있고<sup>28)</sup>, 야오양(姚洋)은 ‘중성정부(中性政府)’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중국의 길을 설명하기도 하였으며<sup>29)</sup>, 추이즈위안(崔之元) 역시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라는 말로 중국 사회의 특수성을 포착하기도 하였다.<sup>30)</sup> 칭화대학의 왕후이(汪暉)나 홍콩중문대학의 왕샤오광(王紹光),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정용넨(鄭永年) 등도 모두 그 추천인 명단에 올라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모두 어느 정도 ‘중국의 길’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그들이 써놓은 추천의 글들이 이 차이와 경계를

28) 윈테권, 《백년의 급진》, 파주: 돌베개, 2013.

29) 姚洋, <中國道路的世界意義>, 《國際經濟評論》, 第1期, 2010.

30) 추이즈위안,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선언》, 파주: 돌베개, 2014.

명확히 하고 있다. 가령, 쟁용넨은 《도시화와 중국의 길》의 일독을 권하면서, 허쉐핑의 핵심 주장을 “자유주의와 GDP주의를 버리고 도시화를 향한 중국의 길을 찾아야”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황하 변의 중국》을 저술했던 자오진칭(曹錦清)은 이를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자칭, 혹은 타칭 자유주의라 일컬어지는 담론들은 중국의 농민·농촌·농업을 문제라고 간주하면서, 모호한 재산권에 바탕을 둔 토지 청부 경영제도를 그 핵심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토지 권리의 논리》는 비록 ‘상식’을 말하고 있지만, 일부 학자만이 학문의 식민화를 인식하고 있는 이상, 이 ‘상식’을 깨닫기 위해서는 건전한 이성과 깊이 있는 현지 조사, 사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가 필수적”이라 말하고 있다.

단순한 추천사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학술 공동체 내 특정 학술 규범 집단의 상호 인정과 정보 교류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집단을 ‘중국의 길’ 연구 그룹이라 할지, 아니면 ‘중국 모델’이나 ‘학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그룹이라 할지는 여전히 모호한 편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네트워크가 실재한다는 점이며, 그로 인해 허쉐핑이 비교적 쉽게 자신의 합리적인 의심을 새로운 담론으로 조직하고 유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가령 본격적인 토지제도 연구에 나서면서 허쉐핑이 가장 먼저 읽었던 자료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논문은 장루슁(張路雄)이 수집·정리했던 것들로<sup>31)</sup>, 장루슁은 이 책의 추천사를 썼던 다섯 명의 추천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허쉐핑은 원고가 완성된 이후 출판에 앞서 주변 학자들에게 자신의 원고를 회람시켰는데, 그들의 리뷰를 거치면서 《토지 권리의 논리》는 동료 학자들의 인정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sup>32)</sup> 《도시화와 중국의 길》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책의 추천사를 썼던 왕후이나 왕샤오광, 쟁용넨, 천시원(陳錫文), 윈테쥘 모두 허쉐핑과 긴밀한 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윈테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든, 아니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든 허쉐핑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경

31) 賀雪峰, 《地權的邏輯》,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0, 349쪽; 필자 인터뷰(2015/02/02).

32) 賀雪峰, 앞의 책, 350쪽; 필자 인터뷰(2015/02/02).

우가 많은데, 만약 허쉐핑의 글이 한국에 번역 소개된다면 그 서문을 자신이 직접 쓰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네트워크를 허쉐핑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혹은 허쉐핑 개인이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본질적으로 중국 학술 공동체 내의 학술 규범 차이이고, 그 차이가 비교적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령 허쉐핑을 강하게 비판했던 저우치런이 《토지 권리의 논리》를 읽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몇몇 국토부 관계자들이 허쉐핑의 새로운 담론을 먼저 접했고, 그들이 저우치런에게 그 책을 소개하였다(그전까지 저우치런은 허쉐핑의 글을 본 적이 없다!). 허쉐핑은 ‘삼농중국’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금도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의 글이 가장 많이 소비되고 논의되는 곳은 정치적 색깔이 짙은 ‘오유지향’이다. 심지어 허쉐핑 본인이 직접 이 차이를 확인시켜 주기도 하는데, 토론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그는 우징롄(吳敬璉)이나 차이팡(蔡昉), 리이닝(厲以寧), 저우치런(周其人)의 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결코 낮추지 않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비판이 결코 논리나 근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술 규범과 같은 부분까지 미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차이팡은 2009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중국 노동자가 3위에 올랐다고 언급하면서 중국 농민공이 중국 경제에 큰 공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허쉐핑은 이 언급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타임》지가 인정해야 중국 농민공이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힐문이다. 허쉐핑은 차이팡의 이러한 학술 태도가 주체성과 자신감이 결여된 것이라 비판한다.<sup>33)</sup>

이러한 상황은 저우치런과의 논쟁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허쉐핑이 《토지 권리의 논리》를 내놓았을 때 저우치런은 그에 대해 강한 비판의 글을 내놓았다. 그런데 사실 ‘비판’이라기보다는 ‘조롱’에 더 가

33) 賀雪峰, <城鄉二元結構具有合理性-與蔡昉先生商榷>, [http://www.snzg.net/article/2011/0318/article\\_22783.html](http://www.snzg.net/article/2011/0318/article_22783.html)

까운 편이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저우치런이 주로 문제로 삼았던 것이 허쉐핑의 학술 규범이었기 때문이다. 가령 허쉐핑의 문체에 대해, 저우치런은 정규 교육을 중학교까지 밖에 못 받은 자신의 국어 실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허쉐핑의 문장은 “문리가 통하지 않는다(文理不通)”고 비판한다. 현지 조사에 대해서도, 어느 농촌을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그 구체적인 1차 자료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제대로 된 1차 자료도 없으면서 현지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마간화(走馬看花)”라는 것이다. 심지어 저우치런은 허쉐핑의 《토지 권리의 논리》를 “여행기(游記)”라고 규정하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인 학술 규범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저우치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회과학이라면 과학 활동의 최소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 요구라는 것은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가설을 제시하며 관찰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검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저우치런은 위에서 언급했던 추천사에서도 문제를 찾고 있다. 그는 장루슁에게 그 “광고 문구를 쓸 때 책을 읽어보기는 했는가”라고 넌지시 묻는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장루슁의 추천사는 일반적인 중국어 화자가 보기에 도 어색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가령 첫 번째 문장에서 장루슁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농촌과 농민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데 있다고 밝힌다. 그런데 그 중국어 원문(“本書最大的特点就是深厚的對農村、農民的了解”)을 읽어보면 그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어렵잖게 발견하게 된다. 게다가 뒤이어 장루슁은 “각종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서로 다른 태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데, 이 부분 역시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중국어 원문은 “具体分析農民中的那部分人對各種政策的不同態度”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표현은 “那部分人”이다. 전후 맥락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那部分人”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의구심만 자아낼 뿐이다. 저우치런도 이를 지적하면서 친절하게도 다음과 같은 충고를 그 문장의 가운데에 삽입하고 있다. “어느 부분’이라 해야 될 것 같다-저우치런의 주(擬應爲‘哪部分’一周注)”<sup>34</sup> 결국 저우치런이 “읽어보기는

했는가”라고 물었던 것은 그 추천사가 갖는 통속성 때문이다. 장루슁 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체일 수도 있었지만, 저우치런이 보기에는 하나의 ‘문제’로 밖에 비춰지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허쉈핑과 장루슁의 학술 집단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일 수 있다. 독서 여부를 묻기에 앞서 저우치런은 장루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장루슁을 여러 해 알고 지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랐어도 오랜 친구라고 할 수 있다.”<sup>35)</sup> 이는 앞에서 인용했던 자오진칭의 추천사와 묘하게 대비된다. 그는 중국 학술 공동체 내의 “일부 학자만이 학문의 식민화를 인식”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sup>36)</sup>

허쉈핑에 대한 저우치런의 비판을 비교적 길게 살펴본 이유는 허쉈핑의 그 네트워크가 사실은 그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원이라기보다는 중국 학술 공동체 내에 형성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술규범의 차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자오옌징의 사례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주를 통해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토지 재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 중에는 자오옌징이라는 경제학자도 있다. 그는 영국 카디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샤먼(廈門)시 도시계획국장으로 재임 중이다. 그런데 그가 ‘토지 재정’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을 때 저우치런은 허쉈핑의 경우와 달리 직접 샤먼시로 내려가 그와 진지한 학술 토론을 가졌다. 그 내용이 자오옌징의 논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sup>37)</sup>,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오옌징과 허쉈핑의 ‘토지 재정’ 해석이 대단히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굳이 차이를 찾자면, 자오옌징이 좀 더 경제학적인 용어로 기존의 학술 규범에 맞게 자신의 설명을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동일한 내용에 대해 저우치런이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 학술 규범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봐야 한다. 허쉈핑이든 저우치런이든 그들의 학술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이 학술 규범의 차이를

34) 그러나 저우치런처럼 수정한다고 해서 그 문장이 자연스러워지지는 않는다. 원문과 전체 내용은 周其仁, <給農民更多的土地權利真的會損害農民的利益嗎?>, <http://www.eeo.com.cn/2011/0722/207068.shtml>을 참조.

35) 周其仁, 앞의 책. 강조는 필자.

36) 강조는 필자.

37) 趙燕菁, <土地財政: 歷史, 邏輯, 抉擇>, 《城市發展研究》, 21卷, 2014.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확실히 허쉐핑의 글은 중언부언이 많고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1차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 인상 비평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이야기가 비논리적이거나 허구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근거와 사례가 풍성하기 때문에, 왜 그가 '토지 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만약 전자를 중요시한다면, 허쉐핑이 최초로 품었던 합리적인 의심은 정보 교환이나 상호 인정을 거쳐 새로운 담론으로 형성되기 쉽지 않다. 반면 후자를 중요시한다면 그 논리와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담론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허쉐핑은 자신의 합리적인 의심을 자신 네트워크 상의 동료 학자들에게 내놓을 수 있었고,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만약 학술 공동체의 학술규범이 통일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통일된 학술규범에 맞추기 전까지 허쉐핑의 새로운 담론은 계속 지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허쉐핑이 사회과학의 주체성을 강조한다든지, 혹은 원테권이나 야오양, 추이즈위안, 쟁용넨 등이 중국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찾아다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저우치런 등이 중시하는 그 학술 규범이 중국의 경험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보는 한, 그들은 끊임없이 '중국의 주체성'이 살아있는 연구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허쉐핑의 새로운 담론이 이 맥락 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학술 공동체의 현실은 부르디외가 《호모 아카데미쿠스》에서 설명했던 1960년대의 프랑스 학계와 매우 닮아 있다.<sup>38)</sup> 부르디외는 1960년대 후반 구조주의와 바르트 식의 기호학이 흥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는데, 그가 주목했던 것은 대학 내 교수진의 구성 양상이었다. 전후(戰後) 프랑스의 대학에는 학생 수가 점진적으로 늘었고, 프랑스 교육 시스템은 대학 교수

38) Bourdieu, Pierre. *Homo Academicu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진의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 변화에 대응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전이라면 대학 교수진에 포함되기 어려웠던 이들이 비교적 쉽게 자리를 잡았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전과는 다른 학술 규범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새롭게 대학 교수진에 소속된 이들은 자신이 이전 학술규범의 최소조건도 맞추지 못한다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완전히 다른 학술규범을 만들어 자신들의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려 한 것이다. 구조주의와 바르트 식의 기호학은 이러한 학술규범이 대립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새롭게 대학 교수진에 소속된 이들이 이전과 다른 학술규범을 추구하면서 그 대안으로 구조주의와 바르트 식의 기호학을 선택했던 것이다.

물론 현재 중국 대학의 교수진 구성이 1960년대 프랑스 대학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서로 다른 학술규범이 공존하는 중국 학술 공동체 내부의 현 상황이 1960년대 프랑스의 그것과 닮아 있다는 뜻이며, 이 학술규범의 차이가 새로운 담론을 끌어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닮아 있다는 뜻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기회 구조'에는 이 상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허쉐평의 '토지재정' 해석이 중국의 학술 공동체에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합리적인 의심' 때문이 아니다. 통일된 학술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학술규범을 강조하고 그에 공감하는 일군의 집단이 있기 때문에 허쉐평의 새로운 담론이 비로소 가능했다.

## 6. 나가며

이글이 최초로 제기했던 질문은 새로운 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이다. 일반적인 이해는 연구자의 합리적인 의심이 언제나 새로운 지식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이 갖춰져야 비로소 새로운 지식이 가능해진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연구자가 자신의 합리적인 의심을 새로

운 지식으로 조직하고 유통시킬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가를 강조한다. 그러나 허쉐핑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연구자 개인의 가용 자원뿐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학술 공동체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를 중간 수준의 '기회 구조'라고 표현하였는데, 가령 중국 출판 업계의 상황이라든지 혹은 중국 공산당의 도시화 전략 추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학술 공동체 내에 형성되어 있는 '기회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허쉐핑이 자신의 합리적인 의심을 새로운 담론으로 조직하고 유통시키는 전체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의 학술 네트워크였으며, 이 네트워크가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학술 공동체 내에 형성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술 규범 때문이었다. '학문의 식민화'를 인지하고, 중국 학술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경험과 그 설명을 추구하는 일군의 학술 집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허쉐핑의 합리적인 의심은 정보 교환과 상호 인정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중간 수준에 형성되어 있던 이 학술 규범의 차이, 혹은 분열이 허쉐핑의 담론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사 형식과 표현이 서구 보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의 경험과 현실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면 그 담론의 가치와 의미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믿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 < 參考文獻 >

- 원테권, 《백년의 급진》, 파주: 돌베개, 2013.  
 추이즈위안,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선언》, 파주: 돌베개, 2014.  
 카를 만하임, 《이데올로기와 유포피아》, 파주: 김영사, 2012.  
 토마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 서울: 동아출판사, 1992.  
 賀雪峰, 《地權的邏輯》,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0.  
 賀雪峰, 《地權的邏輯II》, 北京: 東方出版社, 2013.

- 賀雪峰, 《城市化的中國道路》, 北京: 東方出版社, 2014.
- 華生, 《城市化轉型與土地陷窳》, 北京: 東方出版社, 2013.
- 華中科技大學中國鄉村治理研究中心, 《中國鄉村治理研究中心簡報》, 第21期, 2015
- 楊帥·溫鐵軍, <經濟波動, 財稅體制變遷與土地資源資本化>, 《管理世界》, 第4期, 2010.
- 姚洋, <中國道路的世界意義>, 《國際經濟評論》, 第1期, 2010.
- 趙燕菁, <土地財政: 歷史, 邏輯, 抉擇>, 《城市發展研究》, 21卷, 2014.
- 周其仁, 《改革的邏輯》, 北京: 中信出版社, 2013.
- Alexander, Jeffrey C. *Fin de Siecle Social Theory: Relativism, Reduction, and the Problem of Reason*, London, England and New York: Verso, 1995.
- Ann Swidler & Jorge Ardití, "The New Sociology of Knowledge",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0, 1994.
- Bourdieu, Pierre. *Homo Academicu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 Chiew Pin Yew, "Pseudo-Urbanization? Competitive Government Behavior and Urban Sprawl in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74, 2012.
- DiMaggio, Paul J. "Culture and Cogni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3, 1997.
- Frickel & Gross, "A General Theory of Scientific/Intellectual Movem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70, 2005.
- Geertz, Clifford, *Local knowledge : further essays in interpretive anthropology*, New York: Basic, 1983, pp.152-153.
- Lamont, Michele, "Three Big Questions for a Big Book: Collins's The Sociology of Philosophies", *Sociological Theory*, Vol.19, 2001.
- Messer-Davidow, Ellen, *Disciplining Feminism: From Social Activism to Academic Discours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2.
- Shapin, Steven, *A Social History of Truth*,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Small, Mario L. "Departmental conditions and the Emergence of New Disciplines" *Theory and Society*, Vol.28, 1999.
- Turner, Stephen P. *Brains/Practices/Relativism: Social Theory after Cognitive Scie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 賀雪峰, <城鄉二元結構具有合理性-與蔡昉先生商榷>, [http://www.snzg.net/article/2011/0318/article\\_22783.html](http://www.snzg.net/article/2011/0318/article_22783.html)
- 賀雪峰, <農民上訪, 村庄政治與社會科學主體性>, [http://www.snzg.net/article/2013/0208/article\\_32558.html](http://www.snzg.net/article/2013/0208/article_32558.html)
- 賀雪峰, <人民公社的三大功能>, [http://www.snzg.net/article/2007/1114/article\\_7916.html](http://www.snzg.net/article/2007/1114/article_7916.html)
- 周其仁, <給農民更多的土地權利真的會損害農民的利益嗎?>, <http://www.eeo.com.cn/2011/0722/207068.shtml>

### < Abstract >

While there are many negative review of 'land finance(土地財政)' in Chinese academic community, some scholars emphasize positive aspects of 'land finance,' He-Xuefeng(賀雪峰) is a representative scholar who champions rationality and usefulness of 'land finance.' This paper explores what kind of social factors affect the formation of He-Xuefeng's knowledge. The existing research contends that the higher the academic status of a scholar, the easier the birth of a new knowledge, because he/she can mobilize the necessary resources more easily. Though He-Xuefeng has a lot of resources to produce a new knowledge, but his academic status is not high at all, especially in a symbolic dimension. Rather, this paper contends that the 'opportunity structure' in meso-level of academic community is decisive in the formation of He-Xuefeng's new knowledge. There are three kinds of opportunity structure; the first is 'the new type of urbanization', the plan that Chinese Communist Party recently proposed as a strategy to promote urban population growth; the second is the fierce competition the Chinese publishing companies has faced since the reform of the culture system, including the textbooks market; the third, most important, is an inconsistency of academic norm in Chinese academic community. There are two different academic networks in Chinese academic community, and the

difference is related with an inconsistency of academic norm. He-Xuefeng could gain some research materials by this network, and receive the review and the support of peer reviews. The emergence of He-Xuefeng's new knowledge is subject to the inconsistency of academic norm.

Key words: land finance, He-Xuefeng, opportunity structure, academic norm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3. 31.	2015. 4. 23.	2015. 5. 13.	2015. 5. 18.	2015. 5. 31.